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2022년 10월 5일 | 조사역(G3) 이지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516천 km ² 	인구 2.1억명 (2022 ^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실리주의 
GDP 18,333억 달러 (2022 ^f) 	1인당GDP 8,570달러 (2022 ^f) 	통화단위 Real (R\$) 	환율(U\$기준) 5.14 

- 브라질은 남미 대륙 중동부에 위치(남미 대륙의 47% 차지)하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구 세계 7위 및 GDP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음.
- 철광석, 원유, 농축산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량을 기반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22년 10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인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선을 노린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브라질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브라질은 국제신인도 제고 및 무역 확대를 위해 OECD 가입 및 EU-메르코수르 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와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제 사회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9. 10. 31. 수교 (북한과는 2001. 3. 9.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3), 문화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약('91), 과학기술협력협정('92), 항공협정('95), 관광협력협정('97), 범죄인인도조약('02), 사증면제협정('02),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05), 형사사법공조조약('06), 국방협력협정('08), 사회보장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4,809,207	3,943,638	4,666,440	반도체,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수 입	4,295,597	4,237,366	6,621,717	식물성물질, 철광, 육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2.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311건, 9,426,413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제성장률	1.8	1.2	-3.9	4.6	0.8
소비자물가상승률	3.7	3.7	3.2	8.3	8.2
재정수지/GDP	-7.0	-5.9	-13.3	-4.4	-7.6

자료: IMF, EIU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세이나 경기 침체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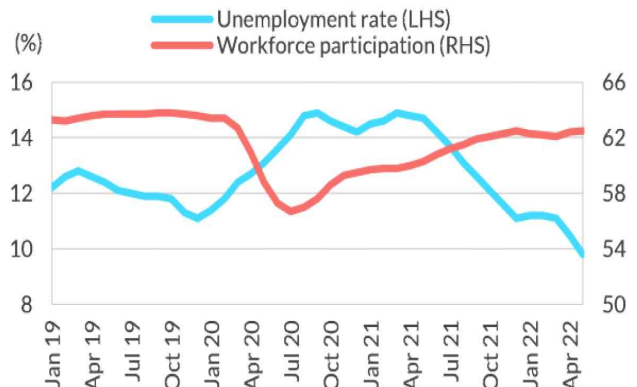
- 브라질 경제는 농산물, 원유, 광물 등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원자재 국제가격 동향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음.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원자재 국제 가격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되었던 서비스 부문의 성장(4.7%)에 힘입어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2022년 1분기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Auxilio Brasil)을 통한 민간 소비 성장 및 실업률 감소, 수출 증대로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거두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구매력 약화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입비용의 증가, 10월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부진이 예상됨.
- 브라질 통계청(IBGE)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브라질 GDP는 전분기 대비 1.0%(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세계 GDP 순위는 2021년 12위에서 2022년 4월 말 기준 10위로 상승함.

[그림 1] 브라질 지출항목별 증감률(% , 전분기 대비)



자료: EIU

[그림 2] 브라질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Fitch Ratings, BCB

국내경제

2022년 상반기에 매월 두 자릿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이며 가계 구매력 약화

- 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심각한 가뭄과 이로 인한 수력발전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전년(3.2%) 대비 크게 상승한 8.3%를 기록하며,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3.75%±2%)를 크게 상회함.
- 2022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식량 가격 및 연료비가 급등함과 동시에 서비스 부문 물가가 정점에 달하며 매월 두 자릿수(상반기 평균 11.3%)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임. 고물가로 인한 가계 구매력 약화는 민간소비 증가율 감소로 이어지며 2022년 하반기 경제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될 전망이다.
-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에 따른 연료 및 전력비용 하락으로 7월 물가상승률은 10.07%로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하반기 대선을 앞둔 정부의 재정 확대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에너지가 격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
- 정부가 연료비에 부과되는 유통세(ICMS)에 상한선(17%)을 부여하였고, 휘발유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PIS)를 금년 말까지 감면함에 따라 7월 가솔린 가격은 전월 대비 약 20% 하락하였음.
- BCB는 2021년 3월(2.00%)부터 2022년 8월(13.75%)까지 기준금리를 11차례에 걸쳐 11.25%p 인상하며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음.
- BCB의 적극적인 긴축 통화정책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EIU는 2022년 8월 말 기준 전망을 통해 브라질의 202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7%로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브라질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EIU) : ('22)9.7 → ('23)5.7 → ('24)3.6 → ('25)3.3 → ('26)3.2

[그림 3] 브라질 월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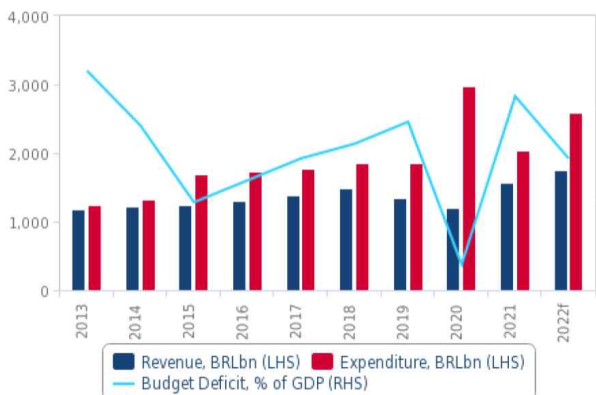
자료: IBGE, Trading Economics

국내경제

양호한 재정수입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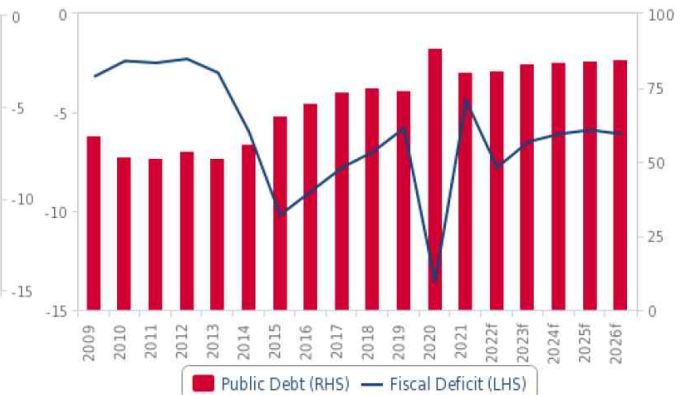
- 브라질은 사회보장지출 및 연금지급 등 고정적인 대규모 정부지출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해 왔음. 2021년에는 원자재 수출 호조, 페트로브라스 등 국영기업의 배당금 인상과 국영 전력공사 일레트로브라스(Eletrbras) 민영화를 통해 정부 수입이 31.7%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이 소폭 개선됨.
- 고유가와 경제회복 기조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 추세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분의 보전 및 현 정부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BCB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올해 2월 공립 교사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서명하였으며, 브라질 의회는 7월 413억 헤알(약 79억 달러, GDP의 0.4%)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승인함. 해당 법안에는 저소득층 소득이전 정책(Auxilio Brasil) 지원금 확대(260억 헤알), 트럭 및 택시 운전자 보조금 지급(74억 헤알), 에탄올 세금 감면(38억 헤알), 노인 무료 대중교통 지원(25억 헤알) 등 포퓰리즘성 정책이 반영됨.
- 브라질 법 상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선거가 시행되는 연도에는 보조금 지원 정책의 도입이 불가하나, 보우소나루 정부는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언하며 해당 법을 우회함.
- 이외에도 금년 말까지 휘발유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PIS)를 감면하였으며(GDP의 0.2% 지출 규모), 휘발유·전기·통신을 '필수재'로 지정하여 유통세(ICMS)에 상한선(17%)을 부여하여 매년 GDP의 0.6%에 달하는 비용을 발생시킴.
- 브라질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2026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8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선 결과 정권이 교체되어도 확대 재정정책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철회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재정적자 확대 및 공공 부채 증가는 브라질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4] 브라질 지출항목별 증감률
(10억 헤알, 왼쪽 축 / %, 오른쪽 축)



자료: National Treasury, Fitch Solutions

[그림 5] 브라질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비율(%)



자료: National Treasury, Fitch Solution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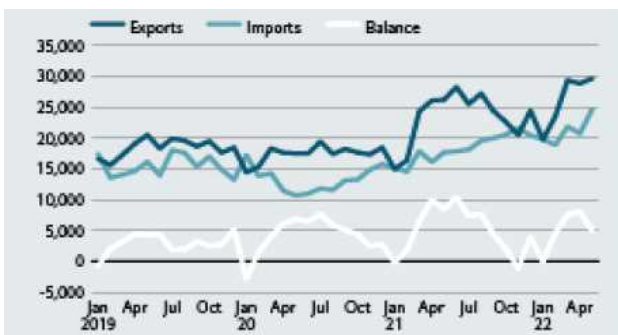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 상 수 지	-51,457	-65,030	-24,492	-27,925	-6,975
경상수지/GDP	-2.7	-3.5	-1.7	-1.7	-0.4
상 품 수 지	43,373	26,547	32,370	36,363	61,588
상 품 수 출	239,520	225,800	210,707	284,012	338,794
상 품 수 입	196,147	199,253	178,337	247,648	277,206
외 환 보 유 액	365,544	346,490	342,707	330,865	306,680
총 외 채	665,199	675,789	639,308	670,286	697,384
총외채잔액/GDP	34.7	36.1	44.1	41.7	38.1
D.S.R.	40.4	38.2	46.0	30.2	22.9

자료: IMF, EIU

원자재 수출 호조에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개선 효과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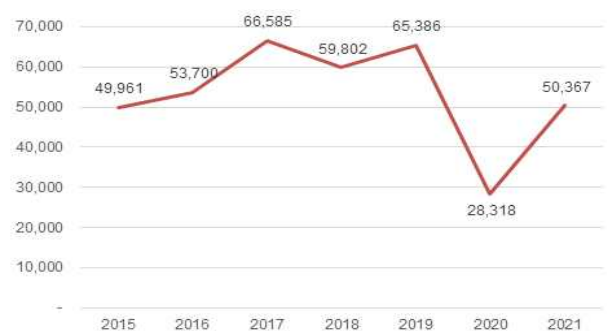
- 2022년에는 철강, 원유, 농산물 등의 수출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0.4%로 전년(-1.7%)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BCB(2022. 8월)에 따르면, 원자재 수출 증가 및 전년 대비 2배 규모의 FDI 유입(45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경유, 비료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5월 경상수지는 3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1차산품 수출 호조 및 코로나 19 영향으로 감소했던 수출액에 대한 기저효과로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강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철광석, 대두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하반기 상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Fitch Solutions(2022.7월)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인해 브라질의 2022년 수출 증가율은 2.4%로 전년도(5.8%)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브라질 상품수출·수입액 및 상품수지(백만 달러)



자료: EIU

[그림 7]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백만 달러)



자료: UNCTAD

대외거래

월평균수입액의 9개월분 이상의 양호한 외환보유액 유지

- 브라질의 GDP의 약 20%에 달하는 양호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음. 2021년에는 원자재 시장 활황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BCB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자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전년 말(3,427억 달러) 대비 3.6% 감소한 3,309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10.5개월분)를 기록함.
- 한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개도국 자본 유출 등으로 인해 2022년 외환보유액은 3,067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8.9개월분)로 2021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BCB의 공격적인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이자율로 인해 외국인 금융자본 유입이 증가하며 2022년 상반기 평균 헤알화 환율은 5.08로 연초 대비 화폐가치가 6.2% 상승함. 한편, 선거를 앞둔 확대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가능성, 대선 후보들의 불확실한 경제정책 방향과 미 연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 증가 등을 고려, BCB는 연말 헤알화 환율을 5.6헤알로 예상함.

[그림 8] 브라질 현물 환율 및 기준금리
(BRL/USD, 왼쪽 축 / %, 오른쪽 축)



자료: Fitch Ratings, Haver

[그림 9] 브라질 외환보유액 추이(백만 달러)



자료: EIU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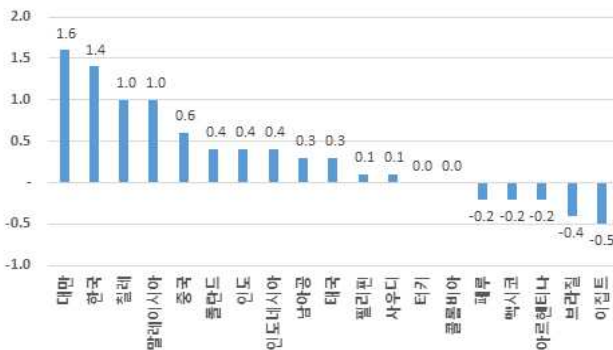
- 2021년 말 브라질의 총외채잔액은 전년 말(6,393억 달러)보다 증가한 6,70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경기 활성화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41.7%로 전년 말(44.1%) 대비 감소하였음. 아울러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에 따른 총수출 회복의 영향으로 D.S.R.은 2021년 말 30.2%로 전년 말(46.0%) 대비 15%p 이상 감소하였음.
- 2022년에는 총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D.S.R.은 22.9%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총외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GDP 규모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또한 38.1%로 전년(41.7%)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구조적취약성

'브라질 코스트'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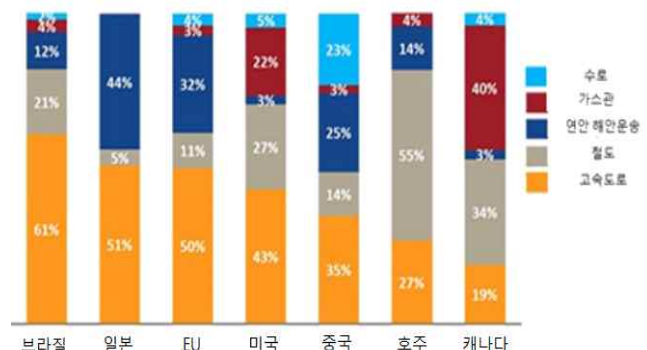
- 높은 조세부담률과 만연한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복잡한 노무관리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브라질의 높은 세율은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브라질의 GDP 대비 조세부담율은 31.6%로 중남미 평균 21.9%를 크게 상회함. 또한 연방·주·시별로 세금 관할 주체가 다르고, 세액 산정 방식도 복잡함.
- 브라질의 관료주의는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 긴 허가 취득 기간 등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대표되며, 이는 해외 기업의 브라질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EIU의 2022~26년 기업환경 분석 및 전망에서 브라질의 기업환경은 6.30점으로 세계 82개국 중 51위를 차지하였으나, 조세 부문에서는 4.7점으로 79위에 그침.
- Bloomberg에 따르면 2021년 브라질의 Governance 지표는 -0.4로 신흥국 19개국 중 이집트에 이어 최하위 수준임.
-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높음. 철도망이 발달되지 않아 도로 운송이 전체 물류의 60%를 담당하며, 트럭 운송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트럭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또한 주요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남동부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안에 집중되어 있어 육상을 통한 내륙 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총 도로 길이 170만 km 중에서 포장된 도로의 길이는 21.3만 km(12.5%)이고, 철도 길이는 29,180km에 불과한 데다 이 중 3분의 1이 사용 불가능 상태로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한편, 친노조적 정치환경, 강성노조, 노동자에 유리한 노동법에 따른 소송 가능성 등 복잡한 노무관리도 브라질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

[그림 10] 신흥국 Governance 평가지표



자료: Bloomberg

[그림 11] 주요국 물류수단 비중(%)



자료: ILOS, KOTRA

성장잠재력

원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농업환경 및 대규모 내수시장

- 브라질 광물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청(ANP)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1년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298만 배럴로 세계 9위 수준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2020년 기준 119억 배럴로 세계 16위 수준임. 또한 미 지질조사국(USGS)의 2022 광물자원 개요에 따르면, 세계 2위의 채광기업 Vale를 보유한 브라질은 전 세계 철광석 생산·수출 2위, 보크사이트 생산 4위, 니켈 생산 8위 및 망간 생산 9위 국가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생산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은 대두 및 옥수수를 중심으로 세계 4위의 곡물 생산국이자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으로, 브라질 전체 수출 중 농산물의 비중이 50%에 육박함. 가뭄 등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나며 2000년 이후 매년 생산량 최대 기록을 갱신 중이며,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약 2억 6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브라질의 역할이 주목되는 요인이기도 함.
- 한편, 브라질은 세계 5위(남미 1위) 면적인 851.6만 km²의 국토에 세계 6위 인구 규모인 2.1억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어 중남미 지역을 아우르는 거점 국가로 손꼽히고 있음. 또한 이웃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의 국가들과 인구 약 3억 명의 거대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형성하고 있음.

정책성과

공기업 민영화 등 친시장적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

- 친시장적 정책을 표방하며 등장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 연금 개혁, 조세제도 간소화를 친시장적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공공 부채를 상환하고 노후 인프라 보수 등을 추진코자 함. 그 결과 2022년 6월 중남미 최대 전력회사인 Eletrobras의 매각에 성공하였으나, 국영 우체국(Correios) 민영화 법안은 작년 말 하원 통과 후 상원에 계류 중임.
- Eletrobras의 공모주 청약 결과 보통주 신규 발행 및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주식 매각을 통해 총 337억 헤알(약 68억 달러)의 자본이 유치되었으며, 이는 광산기업 Vale의 민영화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임. 상장 이후 정부의 의결권 주식 비중은 72%에서 45% 수준으로 떨어짐.
-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실시하던 조세 개혁, 행정 개혁, 민영화 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하반기 대선으로 인해 탄력을 상실하였으며, 현 정권의 정책 수립 기초가 예측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편향됨에 따라 사회적 반발이 큰 친시장적인 세제·행정 개편은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려날 것으로 전망됨. 강력한 대선 후보인 룰라 전 대통령은 민영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영기업 민영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정책성과

상·하수도 및 철도 관련 신규 법령 승인 등 인프라 관련 정부 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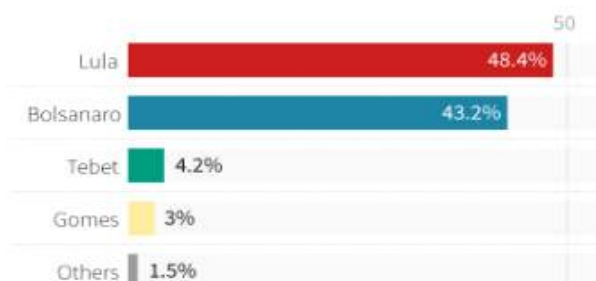
- 브라질은 풍부한 인프라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및 규제,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프라 부문 투자가 미진했으나, 보우소나루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함.
- 브라질 의회는 2021년 12월 신규 철도 법령(Lei 14.273/21)을 통과시켰음. 본 법령의 골자는 철도망 사업 참여를 위해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양허 사업(Concession)에 참가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기업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연방 정부가 허가(Authorization)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임.
- 브라질 인프라부는 2022년 5월 리우-상파울루 고속철 프로젝트를 신규 철도법에 따라 허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중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의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함.
- 2020년 6월 승인된 신규 상하수도 법령(Lei 14.026/20)에 따르면 시 정부나 주 정부는 상·하수도 프로젝트 진행 시 반드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차별이 없어야 함을 명시함. 2019년 기준 브라질 수처리 사업 중 민간이 담당하는 부분은 전체 도시의 7%에 해당하나, 본 법령을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한 민간기업 유치를 늘려 상·하수도 현대화를 꾀하고자 함.
- UNCTAD에 따르면 2021년 브라질 인프라 부문 사업 자금조달 제안(Financing proposal) 건수가 전년보다 53% 증가하였음. IJ Global은 2022년 브라질의 공항·항만·도로 등 사업의 입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약 86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글로벌 경쟁력 순위에서 브라질은 인프라 관련 4개 항목의 순위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항공 서비스의 효율성'은 141개국 중 67위(전년도 85위), '철도 서비스의 효율성' 85위(전년도 86위), '항만 서비스의 효율성'은 91위(전년도 104위), '고속도로 품질'은 108위(전년도 116위)를 기록함.

정치안정

10월 30일 대통령 결선 투표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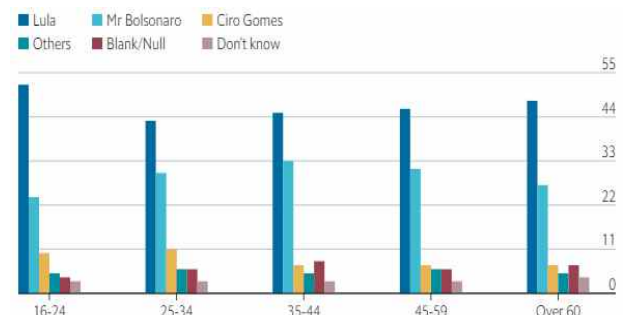
- 2022년 10월 2일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1차 선거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득표율 48.4%(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득표율 43.2%)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10월 30일 결선투표가 확정됨. 룰라 전 대통령은 선거 직전 일부 여론조사에서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여 1차 투표에서의 당선 확정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였으나, 실제 투표 결과 약 5%p 차이의 접전을 보임. 현지 언론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약진 요인으로 '샤이 보수' 유권자와 상파울루 외곽 지역 등 여론 조사 사각지대 내의 숨은 표심을 꼽음.
- 브라질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을 확정짓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함.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회선거에서 보우소나루 소속의 자유당(LP)은 하원에서 98석을 확보해 제1당에 올랐으며, 룰라 소속의 노동자당(PT)은 68석을 확보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지율 상승을 위해 소득이전 정책, 연료세 감면 등 적극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7월부터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감소 등 경제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아울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작년부터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투표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여 대선 뒤 정치·사회적 파장이 예상됨.
- 룰라 전 대통령은 방역 실패, 경제 붕괴, 환경 파괴 등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실정을 연일 언급하고 있으며, 당선 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음. 룰라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중도 우파인 제랄도 알크민을 발탁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유세를 펼치고 있으나, 부자 증세, 노동자 복지 확대 및 헌법 지출 상한선 폐지 등 경제·조세·재정 등 다방면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 불안 등 시장변동성이 심화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여론조사기관인 Datafolha에 따르면 젊은 유권자일수록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음. 청년층의 이와 같은 지지는 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도 좌파 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이 당선 될 경우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Pink Tide, 온건좌파 물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 중 콜롬비아와 칠레의 경우 젊은 유권자의 지지가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함.

[그림 12] 브라질 대통령 1차 선거 후보별 득표율(%)



자료: 브라질 최고선거법원(TSE), Reuter

[그림 13] 연령별 대선 후보 지지율(%, 2022년 7월 조사)



자료: Datafolha, EIU

사회안정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높은 범죄율로 치안 불안 가중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 하나임. 코로나19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빈곤율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사회불안을 촉발하여 경기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음.
-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의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브라질은 인구 중 상위 10%가 총소득의 59%를 차지하고 상위 1%의 보유자산 비중이 48.9%에 달함.
- FGV Social에 따르면 2021년 브라질의 저소득층 비율(월소득 95달러 미만)은 2년 전보다 960만 명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9.6%에 달하며, 인구의 36%가 식품 구매에 필요한 구매력이 없는 상황임. 코로나19 이후 높은 실업률로 1,2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노숙 인구는 종전 대비 30% 증가함.
- World Population Review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브라질의 범죄율*은 67.49로 세계 9위임. '파벨라'로 불리는 빈민가를 중심으로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이 자리하고 있으며 범죄조직 간 충돌,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하루 평균 9~20차례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음. 한편, 보우소나루 정권에서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며 일반인 총기 소유가 늘어난 것도 범죄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
* 범죄율 = (신고 건수 ÷ 총인구) × 100,000
- 보우소나루 정부는 취임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력을 강화했으나, 2022년 6월 UN과 EU 의회는 브라질 경찰의 폭력적 행태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 문제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과 브라질의 OECD 가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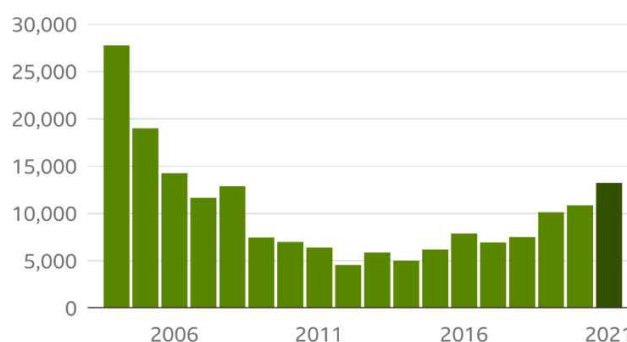
- Moody's(2022.5월)는 ESG 요소가 브라질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 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국토 및 높은 경제다각화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산업인 석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전환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양호한 인구구조와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으나, 높은 소득불평등과 기초생활 서비스 제공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됨.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세계은행(WB)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은 정책 효과성 및 부패 통제의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법 체계, 통화정책 체계 등의 제도적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아마존 개발 등 환경 이슈로 OECD 가입 및 EU-메르코수르 FTA 타결 부진

- 브라질은 국제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2017년부터 OECD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월 OECD는 브라질을 포함, 아르헨티나, 페루,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함께 OECD 가입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협상 시작 후 평균 3~4년 내 협상을 타결,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브라질은 이미 가입에 필요한 조건 251개 중 103개를 달성하여 조기 가입 가능성도 있음.
- OECD 가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혁 부분으로 조세 개혁과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 등 환경 부문이 지목되고 있는 바, 브라질 경제부는 OECD 가입조건 충족을 위해 동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19년 타결된 EU-메르코수르 FTA는 EU 회원국들이 아마존 삼림 훼손 문제를 제기, 협정에 반대하여 비준 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최근 EU가 중국과 러시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큼에 따라 자원이 풍부한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재추진하고 있음.
- EU는 무역협정의 별도 부속문서를 통한 환경 우려 해소장치를 요구하며, 양자 간 협상에서 이를 협의할 예정임.
- EIU는 룰라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환경정책 변화로 EU와의 FTA 비준 및 OECD 가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룰라 전 대통령이 농산물에 치우친 수출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EU와의 FTA 재협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현 정부는 아마존 원주민 소득 증가 명목으로 농경지 확보, 채광 활동을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 개간 장려 및 환경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OECD 및 EU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임기 중 삼림 훼손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함. 한편, 아마존 삼림 파괴는 현 정권의 정책 뿐 아니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고온현상, 건조 기후도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2021년 아마존 삼림 감소 면적은 13,235km²이며,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난 3,987km²에 달했음. 이는 서울시 면적의 6.59배가 넘는 면적임. 아울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2022년 6월 한 달간 2,500회 이상의 화재가 일어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임.

[그림 14] 연도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규모(km², 직전년도 8월 ~ 당해년도 7월)



자료: Prodes, INPE, BBC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21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대 브라질 여신잔액 261.4억 달러(단기 57.8억 달러, 중장기 203.6억 달러) 중 연체액은 6.2억 달러로 2.4%에 불과하며, 전체 외채구조에서 중장기 외채의 비중이 77.9%로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은 1961~92년 파리클럽을 통해 체결된 6건의 채무재조정 협약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1992년 이후로는 추가적인 채무 재조정이 없어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1.10)	5등급(2020.10)
Moody's	Ba2 (2022.05)	Ba2 (2020.05)
Fitch	BB- (2022.07)	BB- (2021.12)

OECD 및 국제신용평가 3사 신용등급은 전년과 동일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브라질에 대한 신용등급은 브라질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대규모 내수시장, 다변화된 산업구조 등을 바탕으로 2018년 2월 이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Fitch는 2022년 상반기 브라질 경제의 기대 이상의 강한 성장세와 더불어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올해 말 기준 78.8%로 2020년(88.6%)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신용등급(BB-)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높임.
- 한편, Moody's는 브라질의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재정적자 구조와 하반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의 등급 및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수출 가격 상승과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4.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간소비 침체,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하반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0.8%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곡물 국제가격 상승 및 수출수요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유, 비료 등의 수입물가 상승은 상품수지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줌. 한편, FDI유입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78%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도 증가 추세임.
- 보우소나루 정부는 임기 초반 연금 개혁에 이어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6월 국영 전력회사 Eletrobras의 매각 절차가 진행됨. 이 외에도 국영 우체국, 항만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나 연내 타결 가능성은 낮음.
-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하반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경기 호조로 인한 수출·해외투자 증가로 대외거래 지표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됨에 따라 외환보유액 및 외채상환능력이 양호한 수준임.